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의 체육수업 경험 이야기

이의재 서강대학교, 강사 · 방서영 대청중학교, 교사 · 김보미* 중앙대학교, 강사

The Story of Physical Education Class Beginn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 of Dance Major

Lee Eui-Jae Sogang University · Bang Seo-Young Daecheong Middle School · Kim Bo-Mi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무용을 전공한 초임체육교사들의 체육수업 경험담을 통해 그들이 체육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5년 이하 무용을 전공한 초임체육교사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귀납적 분석을 활용하여 체육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극복하기, 체육수업 실천하기, 체육수업 성장시키기라는 3가지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내용처럼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실기 준비, 학교현장경험을 통해 노력하였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론적 지식의 활용과 철저한 교재연구, 잘하는 교사보다 잘 가르치는 교사, 학생들을 신뢰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체육수업을 실천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본인들의 체육수업을 성장시키며 좋은 체육교사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논의 주제로 체육수업을 더 잘하고 싶은 무용전공 체육교사, 무용전공 체육교사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하여 내용을 전개하였다.

주요어 : 무용전공, 초임 체육교사, 체육수업, 질적연구, 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eacher's effort through the experiences as beginn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majoring in dance. For this, selecting and interviewing fou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majoring in dance who teaching five years or less in school system. Through inductive analysis the interviews, the results derived three topics. First, overcoming fear and worry about teaching physical education, second, practicing teaching methods in physical education, and third, growing teaching methods in physical education. From these results, beginn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who majored in dance were tried to overcome by preparing the practical skills, teaching school experiences. Also, in the actual P.E. classes in the school, they were experiencing various trials and errors by practic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order to use theoretical knowledge, thoroughly study methods and materials, teach better teachers than good teachers. In addition, they overcame these difficulties and tried to grow their ow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settle down as goo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s a subject of discussion, this study presented the policy proposals for the training of dance majors and dance majors.

Keywords : dance major, beginn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 physical education class, qualitative research, experience

* boms513@naver.com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 정교사 2급(체육)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2-27호: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근거하여 해당 양성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부여되고 임용고사를 볼 기회를 얻게 된다(송효정, 2015). 반면, 사범대학이 아닌 무용계열학과 무용전공생들의 정교사 2급(체육) 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비사범대학 교직이수를 하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직이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방서영, 이의재, 2019; 장서이, 박혜연, 최의창, 2018). 이에은(2018)에 따르면 무용전공으로 무용과로 대학에 입학한 후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 체육교육과로 전과를 하거나 애초에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무용입상성적과 내신 성적으로 사범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무용전공생들은 임용시험을 통해 국공립학교에 발령을 받거나, 사립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되어 체육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체육교사 자격취득 과정을 염두해 두고, 체육 분야에서는 초임 교사들의 교직 사회화 관련 연구가 200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조기희, 이기림, 이호연, 김혜연, 이옥선, 2019). 초임 체육교사의 적응에 관한 연구(김문태, 박대원, 박종률, 2013; 박인서, 2019; 최희진, 2002), 초임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련된 연구(이의재, 유정애, 2012; 제성준, 윤현수, 2015; 최희진, 2006)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장서이(2017)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체육교사 14,130명중 739명의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무용전공자들의 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 체육 교과에서 표현활동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역할이 중요시 여

겨지고 있다(이현주, 박혜연, 2013). 무용전공 체육교사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무용교육 교수활동 실태 분석(유지영, 2006), 무용전공자들의 예비체육교사관련 연구로서 무용전공 교육대학원생의 체육교육실습에 관한연구(이희수, 2018),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영역 가르치기의 현실적 어려움과 해결과정을 담은 김수연(2019)의 연구, 체육교사로 정착하는 무용전공자의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본 장서이, 박혜연, 최의창(2018)의 연구,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의 교직 적응과정을 분석한 방서영, 이의재(2019),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삶과 고충에 관한 연구(김현정, 2014; 정소민, 2012)들이 있지만 무용전공출신의 초임체육교사들 또는 체육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용전공자들이 체육교육과에 진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용교과 또는 무용학과에서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체육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다보니 학교현장에서 가르치는 실기종목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김현정,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하는 그들이 어떻게 체육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천하고 적용시켜 나가는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시작되었다. 무용전공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임체육교사들은 학생들을 대하고 학부모를 대하며, 동료교원들과의 관계형성,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이의재, 2015).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간다면 초임체육교사의 모습을 벗어나며 경력체육교사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학생들과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개선해나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은 학교현장에 나가기 전 체수업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째,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체육수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4명은 모두 무용을 전공하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무용과를 진학하여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의 진학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임용시험 합격을 통해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 이하의 초임 체육교사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전공	근무학교	교직과정	교육경력
이혜령	29	현대무용	경기B특성화고(사립)	교육대학원	3년
최지윤	33	발레	서울C여중(사립)	교육대학원	5년
전유리	30	현대무용	경기D고등학교(공립)	학부 교직이수	1년
정은빛	32	발레	서울E중학교(공립)	교육대학원	4년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심층면담을 통해 주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사이의 래포 형성을 통한 그들의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면담보

다는 무용을 전공한 연구로서 그들이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면담은 2-3회 가량 이루어졌으며 1회에 60-90분 동안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대폰 녹음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2차적으로 그들의 체육수업을 살펴볼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문서 또는 그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SNS의 이야기들을 수집하였다. 추가적으로 면담내용 전사와 자료 분석 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메세지, E-Mail을 통해 보완하였다.

3. 자료분석 및 진실성

심층면담과 수집된 문서들을 통한 자료분석은 질적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귀납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전사된 원자료를 바탕으로 유사한 키워드나 내용을 범주화하고 범주화된 내용들을 재범주화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해석하고 범주화 하는 작업을 지속하였고(Patton, 1990), 그 결과 체육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극복하기, 체육수업 실천하기, 체육수업 성장시키기라는 3가지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자료의 진실성은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다원화 방법인 다각도 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4명과 함께 원자료의 전사과정부터 결과해석 부분에 있어서 함께 구성원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용전공 스포츠교육학 박사 1인, 현장체육교사 1인, 스포츠교육학 교수 1인과 함께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을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무용전공 초임 체육교사들의 체육수업이야기

1. 체육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극복하기

연구결과 4명의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의 가

장 큰 공통점은 체육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도출되었다. 다양한 체육수업 종목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어떻게 가르쳐야할지에 대한 걱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4명의 초임체육교사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로 노력하고 있었다.

1) 교사되기 준비 step 1: 실기 준비를 통한 역량강화

연구 참여자 4명의 초임체육교사들은 대부분 교사가 되기 전 다양한 실기를 준비하면서 실기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또한 교사가 된 이후에도 동료 선생님들과 또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실기연습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체육 실기를 연습했다. 이혜령 교사의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학교로 오기 전에 반 년 간 조교로 근무했던 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 체육과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게 실기를 배우면서 실기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체육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전유리 교사 역시 농구 스포츠클럽 강사로 활동할 때 농구를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 레이업슛, 드리블 등 다양한 기술들을 연습하며 실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또한 최지윤 교사는 부족한 실기능력을 연습하기 위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다양한 실기 동영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세를 해야 하고 피드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실기능력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냥 너무 어려웠어요 두려운.. 게 제일 컸고 아무래도 자신 없는 거를. 내가 자신 없는 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게 가장 컸던 거 같아요. 음 그래도 그 동료 체육 선생님들께서.. 진짜 잘 가르쳐주셨거든요. 그레가지고 배워서 이제 가르쳤죠. 그.. 배구랑요. 뉴스포츠 종목은 조금씩 다 배웠어요. 그래도 동료 선생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는 편이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 여기.. 오기 전에 딱

6개월 동안 체육과 조교로 있었거든요. 거기 학부생들한테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지인들한테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이혜령 교사 면담 자료)

유튜브를 많이 봤어 내가 직접 연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농구 드리블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하는지 슛을 할 때 자세라던지 각 종목별로 보면서 공부도 하고 내 자세도 연습해볼 수 있으면서 어떻게 가르쳐야할지에 대한 고민해도 해보고.

(최지윤 교사 면담 자료)

2) 교사되기 준비 step 2 : 방과 후 수업, 시간강사 등의 교수경험

초임체육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전 다양한 교수경험을 통해 체육수업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전유리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어떻게 가르치고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을 하였고, 최지윤 교사는 학부시절에도 무용학원에서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며 어떻게 학습자들을 통제하고 어떻게 과제를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들을 하였다. 또한, 졸업 후에는 A여중에서 스포츠강사로 경험하면서 체육수업의 다양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정은빛 교사도 졸업 후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발레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을 통솔하고 카리스마 있는 교사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체육교사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처럼 체육교사로 현장에 나가기 전 다양한 수업경험을 통해 체육 수업 운영에 대한 두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나가며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포츠강사를 하면서 체육을 가르쳐봤지. 그리고 내가 실기 스터디를 하다보니까. 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하고 많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가르치게 되었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내 체육수업은 어땠을까? 아찔해~~~ (최지윤 교사 면담 자료)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발레를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생들이 귀여운데 말을 잘 안듣거든..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카리스마 있게 가르

치는 연습을 줬어요. 물론 너무 무섭게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조절해가면서 아이들을 이끌어갔었는데 그때 많은 도움이 된거 같아.

(전유리 교사 면담 자료)

2. 체육수업 실천하기

1) 이론적 지식들을 적용한 수업 실천하기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또는 체육관련 교직수업을 통해서 이론적 지식들이 다양하게 누적된 초임 체육교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있었다. 최지윤 교사가 수업을 이끌어갈 때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여준 뒤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연습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교사가 본인 위주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수업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수업하거나 학생들이 서로 짝을 지어 서로를 가르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만들어나기라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수업 운영은. 일단은 뭐 우리 배우듯이,,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하고 좋은 것이 동료교수모형이잖아. 같이 짝 지어서. 하는 거. 그게 그거랑 또 3인 1조로 해가지고.. 모스틴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 지도.. 어 상호학습형! 두 명이 하고 한명이 봐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암튼 직접 지도를 해보면은, 그니까 실제 지도를 해보면은 직접교수에는 정말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애들한테. 그니까 어. 이런 식으로 그룹 나눠서 하고, 수준별로 나눠서 하는 거? 남자애들도 있으면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니까.

(최지윤 교사 면담 자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신체적, 기능적 차이로 인해 성별을 구분하여 그룹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때는 남녀 학생별로 그룹을 나누어 수업을 하기도 했다. 이론적 지식들을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니 수업이 조금씩 효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또한 이해령 교사는 첫 해에 비해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고 하였다. 수업 진행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는 말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끝까지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특정 학생들을 지목하여 타임아웃을 시키거나 벌을 세우는 수업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음.. 아 저는 그냥 말을 안 해요(웃음) 네. 말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면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다보니까 눈치 채고 이제 반장이나 좀 눈치 있는 애들이 조용히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네 그런..게 조금 방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너무 심할 때는 딱 몇 명 지목해서 벽보고 있거나 이런 거. 근데 사실 벽보고 있기는 애들이 별 소용이 없고요. 자기들끼리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딱 본보기로 몇 명하면 다 조용해지니까. 근데 웬만하면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있었다든지 하면 그래도 여자애들이고 고등학생들이어서 눈치가 좀 빨라요.

(이혜령 교사 면담 자료)

또한 수업 시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초반에는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학생들에게 더욱 반감을 일으켜 역효과를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주변에 같은 시간대에 운동장 다른 쪽에서 선배 교사들이 체육 수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큰 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으시고도 학생들을 노련하게 통제하신다는 걸 보며 이론적 지식들을 되새겨보며 학교현장에서의 적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수업 관리기술의 전략을 활용하게 되었다.

2) 교재연구를 통한 수업준비

초임체육교사들은 체육수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재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교과서, 인터넷 영상, 다양한 수업사례 동영상 등을 찾아보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찾아보고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체육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정은빛 교사는 체육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과서를 많이 보는 일이었다. 스스로가 수업 내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수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전유리 교사

와 최지윤 교사는 학생들마다 학습하는 방식이 다양
 각색이며 배우는 방법도 다르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
 의 수준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학
 생들에게 어떻게 흥미를 느끼게 하여 체육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뉴스포츠 라든지 재미있는 활동이 무
 었는지 찾아보며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등 교
 재연구에 힘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뭐.. 교과서도 진짜 많이 봤어요 일단 교과서에 중
 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되었으니까요.. 교과서
 에 나온 종목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체육
 교사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포츠 종목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재밌는 활동들이 있나 찾아보
 기도 했구요.. 어찌되었든 내가하는 수업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했으면 했거든요. (정은빛 교사 면담 자료)

3) 잘 하는 교사보다 잘 가르치는 체육교사 되기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기 능력이 우수한 교사의 입장보다는 체육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가고자 하였다. 특히 정은빛 교
 사의 처음으로 교단에 섰을 때 학생들에게 체육 수
 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마
 찬가지로 실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문제였다. 체육
 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실기에 대한 불
 안감과 낮은 자신감은 체육 수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지만, 정은빛 교사는
 이내 자신이 체육을 잘 하는 것과 학생들에게 체육
 을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
 신감을 되찾으려 애썼다. 비록 본인은 실기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
 한 고민을 더욱 하게 만들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수업을 이끌어 가
 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이다. 즉 교사가 체육 수업 내용을, 특히 실기 부분
 을 '잘 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정은빛 교사는 임용교사 2
 차 면접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여 이야기했다고 한다.

처음에 교사생활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뭐 당
 연히, 실기에 관한 부분이지. 어.. 그니까 무용과라서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임용 볼 때도 면접 때 얘기했는데, 잘 하는 것과 잘 가
 르치는 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진짜 많이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 두려움을 이겨낸것
 같은?? (정은빛 교사 면담 자료)

정은빛 교사가 실기와는 달리 스스로가 강점이라
 고 생각하고 첫 교직생활 때부터 자신있어했던 부
 분은 학생들을 단체로 통솔하는 일이었다. 교육대학
 원을 졸업하고 나서 한 학기 동안 초등학교에서 방
 과 후 발레 수업을 하면서 수업의 내용 뿐만 아니
 라 수업관리측면에서도 수업을 잘하는 체육교사가
 되고자 하였고, 본인이 학생들을 단체로 대할 때는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모
 습으로서 학생통솔과 리더십에서는 자신의 강점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애들을 잘.. 통솔? 통제하는 거? 제 수업으로 딱 데
 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거? 약간 뭐라 그러지? 말투나..
 말하는 거나. 그런 거 때문인 거 같아요. 상냥하기보다
 는 무섭게 하죠. 그렇게 하면.. 네 저희학교 애들은 말
 잘 들어요. (정은빛 교사 면담 자료)

정은빛 교사가 학생들을 단체로 잘 통솔하기 위
 해 카리스마 있는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
 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었다. 요즘은 학
 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들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다가 특히 체육 수업은 학생들의 활동 반경
 이 넓다는 과목 특성상 더욱 그러한 안전사고의 위
 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은빛 교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업 중 안전에 대한 강
 조는 아낌없이 한다고 하였다. 특히 정은빛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운동장은 좁은 편인데 체육교사는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주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운
 동장을 다른 학급과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학
 급의 수업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도 학생들을
 자신의 수업 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
 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은빛 교사는 학생들이 질
 서를 잘 지키고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구역을 벗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다양한 사례를 많이 얘기해준다고 하였다. 이는 안전에 대한 상시학습을 통해 안전사고를 항상 대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정은빛 교사의 의도와도 연결된다.

저희 그리고 운동장이 되게 좁아서.. 체육교사는 7명인데.. 아예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 이탈하면 안된다는 거 항상 강조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뭐 체육수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물어보면 항상 안전이라고 답할 수 있게. 교육을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되게 많은 사례를 얘기해줘요 애들한테. (정은빛 교사 면담 자료)

이혜령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창의력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무용수업을 할 때 수업에서 사용할 음악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오도록 하고, 전통적으로 정해진 무용수업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즉석에서 무용을 창작해내는 즉흥 무용 수업이라든지, 소그룹의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수업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는 내가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잘하지만 그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 창작수업을 활용하고 있었다. 작년에는 이렇게 반마다 학생들이 창작한 창작 무용을 가지고 학급별, 학년별 대회도 열었는데, 이혜령 교사 자신이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을 많이 보여주어서 학생들의 기발함에 오히려 놀랐다고 한다. 물론 이혜령 교사의 이런 수업 방식을 모든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 따르는 건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체육 수업에 소극적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창작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협조적이지도 않다. 그럴 때 이혜령 교사는 자신이 발동작을 가르쳐주면 나머지 상체 동작만이라도 학생들이 창작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생각보다 사실 저도 좀 도전이었는데.. 고등학생들

이고 이래서 이걸 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진짜 기발하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그런..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있죠. 이제 조별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고 반별로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중략) 제가 그리고 라인 댄스를 가르쳐도, 이제 저는 발동작만 가르치고 상체는 아이들이 짜서 자기들끼리 짜서 시범을 본다든지 해서 창작력 점수를 항상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너무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아이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형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했었던 거 같아요. (이혜령 교사 면담 자료)

4) 학생들을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기

정은빛 교사가 생각하는 교사로서 좋은 점은 교사 본인의 실력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교라는 곳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에 필요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이었다. 또한 교사로서의 교직 생활은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공평함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대하게 되었다. 그러한 점은 학생들에게도 직접 강조를 하였다. 그러한 점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은 교사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모습 통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저는 공평한 게 좋거든요. 평등? 공정한 게 좋은데. (중략) 그래서 애들 가르칠 때도 첫 시간에 항상 얘기해요. 나는 편애 안할 거고, 차별 안할 거다, 라고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정은빛 교사 면담 자료)

정은빛 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평함이라는 것으로 정하고 그에 준하게 행동하는 한편, 정은빛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점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들이 1년 동안 본인과 함께 학급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것들, 예를 들면 시간 약속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와 배려 등과 같은 것이었다. 정은빛 교사로서는 신뢰야말로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에서 인간관

계를 맺을 때 가장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담임반 애들이나 체육시간에 애들한테 항상 시간 약속이나 그 외에 다양한 약속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학교가 공부만 하는 데가 아니라 기본생활 같은 거를 배워야 되는 텐데, 그거를 딱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너희가 1년 동안 나한테 그건 배워가라. 약속 중에 기본 약속이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깨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정은빛 교사 면담 자료)

한편 이해령 교사는 수업 중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순간은 학생들이 가끔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 분노를 갑작스럽게 표출한다든지 할 때이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개성도 성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다양인데, 그렇게 각각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의 돌발 행동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직은 스스로의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좀 힘들 때는.. 음.. 좀.. 애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 갑자기 욱 하거나 아니면 대들거나 이럴 때? 근데 저희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돌발 상황이라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지혜롭게 처신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가끔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 때.. 아이들마다 또 특성이 다르니까 또 휘어잡아야 되는 애가 있고, 아니면 그냥 좀 다독여야 되는 애가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조금 미숙한 거 같아요.

(이해령 교사 면담 자료)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를 볼 때마다 교사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해령 교사는 학급 학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을 혼내곤 했는데, 그런 행동은 그 학생의 반항심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혼나는 창피를 당한 것 자체를 자신이 피해 입은 상황이라고 인식한 학생은 종종 더욱 심하게 이해령 교사에게 대들곤 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나중에 개인적

으로 불려서 따로 얘기해보면 곧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수긍한다고 했다. 이렇게 학생들의 기본 예의를 바르게 잡아주는 과정에서 이해령 교사 역시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이 상처를 덜 받으면서도 바른 태도를 보이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관계에 관하여 이영림, 최은용(2019)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존중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지도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가 형성되어갈 수 있었고, 신뢰가 형성되며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더욱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3. 체육수업 성장시키기

1) 초임체육교사에서 좋은 체육교사로 성장하기
최지윤 교사는 실력의 준비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교사가 '좋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좋은 체육교사'에 대해서 최지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통하고, 배움에 열려 있는 교사라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좋은 교사가 되려는 것보다는 발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좋은 체육교사는 좋은 교사의 조건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소통하는 교사, 배움에 열려있는 교사라면 누구든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사는 교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운영 측면에서 능숙하고 여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은 무조건 시간, 경험과 결부됩니다. 지금 당장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천천히 발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지윤 교사 추가 인터뷰 자료)

또한 이해령 교사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좋은 체육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육교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인들 중에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무용이 아닌 체육만 가르치는 것에 부담

과 실증을 느껴 곧 교직을 그만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무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무용만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체육 교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응해 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이해령교사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체육교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음.. 어.. 체육을 배우는 것도 그니까 어쨌든 학교 현장에 나오려면 체육을 좀 배우는 것도 필요는 한 거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설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제 제가 아는 분들도, 뭐.. 학교에 있다가, 체육만 가르쳐야 되는 현실에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마음가지집?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무용이랑 일반 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애들이 할 수 있는 무용은 또 달라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무용을 대중화하면서 아이들에게 다르칠 수 있는 지도법이나 교육방법들이 더 연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혜령 교사 면담 자료)

또, 무용 전공자들이 늘 접하던 무용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적용과 변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과 예비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해령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체육교사'란 학생들이 편안하게 친구같이 느낄 수 있는 교사이며, 체육 수업 시간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사라고 했다. 이를 위해 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성실'과 '친절'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체육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남기 위해 여러 장르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제자 간의 딱딱한 위치로서가 아닌 정말 친구 같은,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교사가 되기 위해 매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이혜령 교사 추가 인터뷰 자료)

2) 학교안과 밖 동료, 선배교사와의 소통

최지윤 교사는 교직 생활 초반에 선배 교사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경험은 딱히 많지 않다고 했다. 옆에서 본인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가끔 선배 교사의 수업을 관찰한 것 이외에 그다지 많은 교류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 첫 학교에서는 본인을 포함하여 체육교사가 총 두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처음으로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학교에서 4년 여 간 근무하다가 올해 옮긴 학교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체육교사가 총 네 명이어서 비교적 선배 교사들을 통해 보고 배울 기회가 많다고 하였다. 최지윤 교사 이외의 다른 교사들은 모두 남교사이고, 체육 전공을 하셨다. 한 분은 최지윤 교사보다 1년을 먼저 들어온 선배 교사이고, 다른 한 분은 이 학교에서 근무한지 15년이 되었으며,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정년퇴임을 2년 정도 남겨두고 계시다고 하였다. 또한 선배교사들의 지인들을 통해 주변 학교 교사들과의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나아가 비슷한 타 학교 동료 체육교사와의 소통도 많아지고 있었다. 최지윤 교사가 선배 교사들을 통해 배운 점 중에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였다. 연차도 어느 정도 높고 나이대도 최지윤 교사보다 훨씬 많은 교사들이지만, 학생들에게 아직까지도 존댓말을 쓰며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최지윤 교사는 많은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이 두 분 선생님어, 정말. 아 세 분 다 일단은 학생들한테 되게 깎듯하게 대하시고. 수업 시 뿐만 아니라 어.. 웬만하면 존댓말로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 특히 제일 나이 많으신 선생님은 정말, 수업을..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고,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찬 수업. 정말 하나도 막 이렇게 떼쓰고 이런 게 없어. 늦게 나가고 이런 것도 빨리 들어오고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좀 존경스럽다. 왜냐면 아무리 그렇다 쳐도 이 나이 때까지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걸?

(최지윤 교사 면담 자료)

이렇게 학생들을 존중하는 선배 교사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한 최지윤 교사는 본인 역시 학생들을 어리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자신과 수평적 관계에 놓인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예의를 지켜 대해

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특히 제일 연차가 높은 선배 교사는 수업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딱 찬'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학생들과의 일체감 있는 호흡으로 풍부하고 알찬 수업을 이끌어어나간다고 하였다. 특히, 절대로 수업 시간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수업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법이 없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실제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 중 하나가 수업 시간 엄수이다. 그렇지만 최지윤 교사 말대로 모든 교사들이 수십 년의 교직 생활 중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을 어기지 않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최지윤 교사의 선배 교사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수업 시간을 지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후배 교사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유리 교사와 정은빛 교사도 선배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전유리교사는 학교 생활중 곤란을 겪을 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배 교사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 계시는 교사들과도 연결이 되어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같은 학교에 계시는 교사들과 사이가 모두 좋은 편이고 다들 나서서 도와주는 분위기라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학교 규모가 작은 편이라 체육 교사가 전유리 교사 혼자여서 체육 교과 선배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임자로 계셨던 교사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학교의 체육교사들에게 전화를 해도 모두 친절하게 질문에 대답해준다고 하였다. 정은빛 교사는 선배 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선배교사들의 수업을 유심히 관찰하며 배우고 있었다. 심지어는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부터 학생들을 줄 세울 때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지 등에 대해서까지 하나하나 선배교사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전에 있던 체육선생님한테 물어보는 편이고 그리고.. 네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된 친한 선생님들한테 사적으로 전화해도 다 대답해주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있어요.

(전유리 교사 면담 자료)

그 선배 교사한테 조언을 진짜 많이 구했어요. 조언 중에서 제일 도움 됐던 거?(웃음)어..뭐가 있을까.. 그냥.. 그냥 다 물어봤어요. 뭐 마이크 사용하는 거부터 애들 줄 세우는 거, 그 다음 준비운동 정리운동 수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아예 내려가서 종이랑 펜 들고 내려가서 다 물어봤어요.

(정은빛 교사 면담 자료)

3) 체육교과 안에서 무용의 영역 넓히기

최지윤 교사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전문성 면에서 조금 뒤쳐질 수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면에서 자신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또 그러한 장점을 지속적인 관리와 개발로 인해 더욱 부각시키면 훨씬 뛰어난 체육교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체되어 있지 말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면을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무용은...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보이잖아. 그리고 잘하려면 오랜 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어 우리는 더 어려운 걸 더 잘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어필을 많이 했었어. 여기학교 들어 올 때도 그래서, 또 무용으로 발레 한국 현대무용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뭐 나 하는 거처럼 재즈댄스도 하고 방스댄스도 많이 가르치고, 라인댄스는 내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연수도 들어볼 생각이고, 스포츠 댄스도 배웠었거든. 그것도.. 그거 가르치려면 훨씬 더 많이 배워야 하긴 하겠다. 암튼 그것도 그렇고 뭐 치어리딩 같은 것도. 이것들은 우리가 훨씬.. 뭐 다른 체육 선생님들보다 우리가 훨씬 질적으로 잘할 수 있잖아. 어. 그리고 애들이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니까.. 어.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만 하면은 음 플러스알파로 정말 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지윤 교사 면담 자료)

최지윤 교사는 무용이라는 분야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실력이 뛰어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확연히 드러나는 분야이고, 실력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타 분야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무용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 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겪어 낸 사람들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분야에서의 빠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점을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채용 면접을 볼 때도 많이 강조했다. 또 특정 장르의 무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것만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인 육성이 아닌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방송 댄스라든지 라인 댄스 등 유사한 분야의 다른 어떤 무용도 어느 정도 지도가 가능한 만큼, 신체 활동을 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는 체육 분야에서도 역시 부족함 없는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수업에서 체육 교사는 자신이 실기를 아주 잘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즐겁고 성공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윤 교사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체육 실기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면 체육 수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체육 교과의 대영역 중 표현 영역에는 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분명 체육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용을 가르쳐야 될 순간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무용을 전공한 체육 교사들이 더욱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능숙하게 학생들에게 무용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학교에서 체육 교사를 채용하려고 할 때 무용전공 체육교사보다는 체육전공 체육교사를,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도 여교사보다는 남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체육교사의 이미지 또한 어렵듯이 그려볼 수 있다. 이것은 학교 영역을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성별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도 연관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최지윤 교사는 당장 이러한 현실을 뒤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여교사가 거의 대부분인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조금 더 키우는 데에 힘쓰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최지윤 교사는 현재 체육 교과서 표현 영역에 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용의 독립적인 수업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윤정진, 한국화(2014)의 연구를 통해, 무용교육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무용 교육의 중요성과 스포츠와 무용의 균형적인 수업으로 더욱 질적으로 풍부한 체육과 교육과정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기 위해 부족한 현재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무용전공 체육교사에 대한 환경적 지원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 교과서 표현 영역에 무용이 있지만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있는 학교라면 무용의 독립적인 수업이 있어도 좋을텐데 그 환경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스포츠와 무용의 균형적인 수업이 체육과 교육과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지윤 교사 추가 인터뷰 자료)

이혜령 교사는 예술과 체육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못하는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입지가 현재 매우 불안정한 위치라고 하면서, 무용 교사의 입지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예를 들어 무용 관련한 연수를 가더라도 참여 인원은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뿐이었다고 했다. 또 중 고등학교의 체육전공 체육교사들은 그들대로의 자부심 때문인지 무용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편이라고 하면서,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더 늘어나서 체육 수업에서의 무용 관련 수업의 비율도 늘리고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더욱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 일단은 뭐 저번에 문자 메세지로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는 무용 선생님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용관련해서, 연수가.. 있었어요. 재작년이랑 작년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다 초등 선생님들인 거예요. 네 그니까 사실.. 중 고등학교에 써도 좋은 내용의 연수인데... 무용 선생님들이 없다보니까..그리

고 중고등 무용 선생님들이 계시더라도 이미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 분들도 걱정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계속 이런 거 만들고는 싶은데, 수요적으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많이 없다보니까요...

(이혜령 교사 면담 자료)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무용전공 체육교사로서 느끼는 고충 중에서 '주변인'이라는 느낌과 '무용계에 대한 회의 및 그리움' 모두를 느낀다고 말하면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무용교육에 대하여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신주영(2018)의 연구 결과로, 무용전공 체육대학원생들이 무용과 체육 사이에서 정체성 갈등을 하고 있고, 체육분야에서 더욱 무용이 장기인 것을 찾게 되는 현상과 같은 맥락임을 암시한다.

'저 선생님은 무용을 전공해서 체육은 잘 못 할 거야라는 생각은 학생과 동 교과 교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행히 교과 선생님들은 고충을 알기에 잘 도와주는 편이나, 무용전공 체육교사가 특별하게 여겨질 때도 있는 반면 체육을 가르치기에 부적합하다는 편견이 큰 것 같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무용인들은 무대에 서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으로써 희열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현장에서 많은 업무로 인해 본인이 창작을 하기 보다는 교육에 힘을 써야 하기에 무용에 대한 회의와 그리움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함께 모여 무용교육에 대한 힘을 싣고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령 교사 추가 인터뷰 자료)

이혜령 교사는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무용에 대한 열정을 가장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교사 중 한 명이었다. 현재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이 인원수에 있어서도, 교육 제도나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무용교육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진전을 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논의

1. 무용전공 초임 체육교사를 위한 역량 함양 방안

1) 체육실기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기회의 제도적 변화 필요

초임 체육교사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이 제시되었지만, 더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서영, 이의재(2019)의 연구에서도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는 실기연수들을 통해 실기역량을 기르고 있음을 언급 한 바 있다. 현재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연수는 경력 4년 이상의 경우에 받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이 있다(이의재, 유정애, 2012). 이는 1급 자격연수 과정을 통해 초임교사들은 많은 성장을 이룬 후에 이루어지는 1회성 연수이기 때문에 자격연수 이외에 다양한 자율연수들을 통해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의 역량을 길러 그들의 역량을 학교현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정소민, 2012). 김민정(2017)은 문화예술교육사 무용교육 연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무용 전공, 비전공자 모든 집단이 연수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무용교육 이론 능력과 무용수업 능력이 적지 않게 향상된다고 판단됨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연수를 통해 교수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2) 무용 전공자들의 체육교사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추구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체육교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무용교육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과정, 같은 마음,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공동체 형성은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성장과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는(김현정, 2014),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이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에

게 도움이 될 것이다(윤기준, 이계산, 이창현, 2018).

2. 무용전공 체육교사양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1) 예비 체육교사 양성제도 변화의 필요성

본 연구의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과에서 교직이수 또는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체육교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체육교사가 된 사례들이다. 결과 1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체육과를 진학하기 위한 실기준비, 무용과를 졸업하면서 다양한 체육관련 수업, 교육대학원에서의 실기수업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이론적 수업들을 이수한 채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다보니 실기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무용전공자들이 체육교육과에 진학하는 사례의 경우에는 체육과 관련된 수업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는 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무용과에서 교직이수 과정 또는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을 통해 체육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교육실습도 경험하는데 이러한 교육실습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수, 2018). 이러한 예비 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무용전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 무용학과에서 체육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기본이수과목 이외에 체육과 관련된 실기, 실기 지도법과 관련된 교과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서도 이론적 수업이외에 실기수업을 편성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실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현직교사교육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수기회와 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원자격증 체육, 무용 표기의 체계성 제고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무용 교과 교원자격증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홍애령, 김지영, 박재근

(2019)에 따르면, 9개 대학에서 무용 교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7개의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을 통해서 무용교과 교원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무용교육선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표기의 변화에 따른 체육교사, 무용교사의 지도 역량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융화될 것인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김보미(2019)에 따르면 무용교육자격증을 발급하는 해당 무용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체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기본이수 과목의 명칭변경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학과에서의 교직이수나,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하면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07개정체육과교육과정부터는 다섯 개의 대영역 중, 표현활동이 한 영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표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활동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의 역할의 비중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애령, 김지영, 박재근(2019)는 단위학교에서 무용교과를 선택교과로서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에 대해 알고 있는 학교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용교과로서의 다양한 수업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무용교과가 어떠한 효과가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과 그러한 연구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을 전공한 초임체육교사들의 체육수업의 이야기를 탐색하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5년 이하 초임 체육교사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귀납적 분석을 활용하여 체육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극복하기, 체육수업 실천하기, 체육수업 성장시키기라는 3가지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초임 체육교사들은 좋은 체육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으로 습득한 체육수업방법지식과 체육수업지식 등은 학교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기에 초임체육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제성준, 윤현수, 2015).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 4명의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4명의 초임교사들은 초임 체육교사들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며 좋은 체육교사로 성장해나가고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무용전공 체육교사이기 에 체육과 관련된 종목의 실기 역량이나 지도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인식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체육수업의 준비와 실천에 다른 초임 체육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장서이, 박혜연, 최의창(201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무용전공자들이 체육교사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체육 실기 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함으로써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무용전공자이기 때문에, 무용전공이 아닌 일반 체육교사들에 비하여 표현활동 수업에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비해 표현활동의 내용이 광범위해지면서 다양한 표현활동 관련 수업이 체육교사, 특히 남교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활동영역을 가르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지연, 김두련, 2012; 이현주, 박혜연, 2014; 홍희정, 조미혜, 2012).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무용전공 체육교사들은 본인들이 내재하고 있는 무용역량을 전통적 무용교육의 형식에 맞춰 고집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변화시켜 다양한 표현활동 수업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용전공 초임체육교사들의 역량을 기르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선배교사들과의 학교 안 학습공동체 활동 및 학교 밖 학습공동체 활동을 언급

하였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의 효과는 선행연구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손천택, 제성준(2017)은 학교 안 학습공동체 활동의 사례로 학교 내 체육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해 단위학교 내 체육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의재, 유정애(2016)는 학교 밖 학습공동체 활동으로서 지역단위 교육실천 공동체를 통해 초임 체육교사들의 업무역량 또는 수업의 전문성이 발달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성과 수업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학교 밖 체육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 초임시기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성장하여 본인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서영(2019)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적 가치성, 관계부담성, 활용부담성, 학습효과성에 있어서 교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또 다른 방안으로는 SNS를 활용하여 교사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 따라, 2가지 향후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임체육교사들로만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무용전공 경력체육교사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무용전공자로서 10년 이상 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그들의 삶은 초임교사들에 비하여 어떠한지, 체육교사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논의에서 언급된 것처럼 무용 교원자격증 취득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무용교과로서의 학교현장에 정착 가능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태, 박대원, 박종률(2013). 중학교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 경험 들여다보기. *교육연구*, 58, 59-83.
김민정(2017). 문화예술교육사 연수 여부에 따른 무용교

- 육이론 및 무용지도 능력 비교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7(1), 22-31.
- 김보미(2019). **예비 무용교육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무용교육 돌아보기 : 예술과 체육사이에서**. 2019 한국스포츠프교육학회 통합세미나.
- 김지연, 김두련(2012). 하나로 수업 모형을 적용한 표현 활동 수업에 따른 교사들의 수업 내용과 교수 학습방법 인식의 변화.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4), 1-13.
- 김현정(2014). **무용전공 여성체육교사로서의 삶**.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인서(2019). 초임 체육교사의 교직 생활에 대한 행복 답론. **교육문화연구**, 25(4), 509-528.
- 박혜연(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56(5), 577-587.
- 방서영, 이의재(2019). 무용전공 고등학교 초임체육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과교육학연구**, 23(5), 409-421.
- 서영(2019). 소셜미디어 속성에 따른 무용교육의 교사 태도 관계성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19(3), 29-40.
- 손천택, 제성준(2017). 자생적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의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과 의미. **교과교육학연구**, 21(3), 240-252.
- 송효정(2015). **무용전공자에서 예비체육교사로 성장하기**.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주영(2018). 무용전공 체육학 대학원생의 정체성 형성 과정. **한국무용학회지**, 18(1), 13-23.
- 유지영(2006). **체육교사의 무용교육 교수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기준, 이계산, 이창현(2018). 체육교사학습공동체 온라인 카페 활용 탐색 사례연구. **한국스포츠프교육학회지**, 25(4), 21-40.
- 윤정진, 한국화(2016). 초등학생의 기본교과 무용수업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무용수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지**, 14(2), 27-34.
- 이여름, 최은용(2019). 무용수업에서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척도 개발. **한국무용학회지**, 19(1), 49-59.
- 이의재, 유정애(2012). 1정 연수 현장 37일 : 초임 체육교사의 성장 과정. **한국체육과학회지**, 21(4), 801-816.
- 이의재(2015). 초임체육교사의 교육실천공동체 참여 실태 분석. **한국스포츠프교육학회지**, 22(3), 23-50.
- 이의재, 유정애(2016). 교육실천공동체 활동을 통한 초임 체육교사의 성장과정 이해. **한국체육학회지**, 55(1), 285-298.
- 이현주, 박혜연(2014). 표현활동에서 창의성 가르치기: 중학교 표현활동 지도의 어려움 및 통합적 지도 방안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3), 167-180.
- 이희수(2018). **교육대학원 재학생인 무용전공자의 체육교육실습경험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서이(2017).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전문적 정체성 형성과정 및 요인 탐색 : 이방인에서 개척인으로 성장하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서이, 박혜연, 최의창(2018). 체육교사로 정착하기 무용전공자의 체육교사 전문적 정체성 형성 양상과 요인. **체육과학연구**, 29(1), 138-153.
- 정소민(2012). **체육교사의 고충과 실천적 노력에 관한 인식 분석 : 무용전공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제성준, 윤현수(2015). 좋은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에서 중등 초임 체육교사가 겪는 사고 변화. **교과교육학연구**, 19(2), 259-280.
- 조기희, 이기림, 이호연, 김혜연, 이옥선(2019). 초임 체육교사 사회화에 관한 체계적 문헌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5(3), 63-76.
- 최희진(2002). 초임 중등체육교사의 교직 적응과정. **한국스포츠프교육학회지**, 9(2), 43-63.
- 최희진(2006). 중학교 초임교사의 체육교과 전문지식 형성과정. **중등교육연구**, 54(2), 27-52.
- 홍애령, 김지영, 박재근 (2019). 무용교원자격 및 교과제도 개선 방안 연구: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및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8(2), 363-372.
- 홍희정, 조미혜(2012). 중등학교 표현활동 수업 창작지

도를 위한 "SPREAD" 전략 개발. **한국여성체육학
회지**, **26**(1), 33-52.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논문투고일: 2019. 11. 29

심사완료일: 2019. 12. 23

수정완료일: 2020. 01. 03

게재확정일: 2020. 01. 16